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창작 개인·단체·예술확산·젊은예술 등 4개 분야 359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2025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하 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공모에는 예술창작 개인 및 단체, 예술확산, 젊은예술 등 4개 분야에 906건이 접수됐으며, 행정 심사 및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359건이 선정돼 총 1,650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내용은 예술창작(개인) 146건, 예술창작(단체) 147건, 예술확산 24건, 젊은예술 42건이다. 장르별로는 문학 89건, 시각(미술, 사진, 서예, 공예) 99건, 공연(음악, 연극, 무용, 전통) 150건, 다원 21건이다. 공모 선정률은 전년 대비 5.3% 상승한 39.7%로, 공모사업 체계 개선 전인 2023년도(선정률 30.3%)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다. 육성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기초예술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도내 역량 있는

전문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대표 사업이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예술 현장 라운데이블, 예술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컨설팅, 자체 평가 등을 진행하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주요개선 및 보완사항으로는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개인 창작활동비 확대, △지원 기회의 균형을 위한 휴식년제 강화, △장애인 단체 가점 기준 강화, △인구감소 대상지역으로의 가점 전환(10개 시군), △미정산 제재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에 군 단위를 중심으로 적용하던 가점 방식을 '인구감소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선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원시와 김제시의 선정률이 상승했고, 전체적인 지역 간 편차 역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젊은예술' 분야에서는 올해 전체 선정 건수 대비 11.7%의 비율로 42명의 청년예술인이 예술 창작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창작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가피하게 소외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의 틈을 메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창작지원팀(063-230-7404, 744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27일까지 접수... 숙박비·체험비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와 참여자들에게 체류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전북 관광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공모 접수는 18~27일까지며,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개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도의 거주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소 7박 이상, 최대 29박 이하의 장기체류를 희망자다. 선정자는 숙박비(1팀당 1일 7만원), 체험비(1인당 15만원), 여행자보험료(1인당 2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체류기간 동안 개인 SNS에 여행후기를 게시해야 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고, 긍정적인 여행 경험을 얻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이 제작한 SNS 게시물이 전북 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전북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는 총 30명으로, 체류 기간 총 527건의 SNS 게시물을 제작해 전북 관광 홍보에 기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관광콘텐츠팀(063-230-7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백제문화체험관, 개관 1주년 ‘생일잔치’ 개최

22~23일 덕담 이벤트·체험·돌떡 나눔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익산백제문화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2~23일 '생일잔치'를 연다. 이번 행사는 덕담 이벤트, 무료 체험, 돌떡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덕담 이벤트는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덕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무료 체험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를 인증하면 22~23일 왕관 만들기과 다도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체험, 인생네컷, 의복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왕관 만들기과 다도 체험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17~21일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아울러 행사 기간 방문객에게 돌떡을 나누고,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돌상 사진촬영 장소'도 만들어 재미와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백제문화체험관(063-836-5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익산백제문화체험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생일잔치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4월부터 새롭게 선보일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임실 방문의 해 맞이 ‘4色 이음 팸투어’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 우수한 관광자원 국내 주요 여행사 관계자에게 알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지난 14~15일 진행된 '4色 이음 연계 임실군 관광개발사업지 답사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임실군 방문의 해를 맞아 신규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한국여행사협회와 여행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 참가자들은 전북소방 119 안전체험관의 위기 탈출 체험,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치즈 만

들기 체험 등 임실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튿날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설화가 얹힌 성수산과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필봉 농악전수관 등 임실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관광지를 즐겼다. 핵심 일정인 '2025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설명회'에서는 재단과 임실군이 전북 관광의 발전 가능성과 정책을 알리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팸투어에 참가한 여행사 관계자는 "재단이 기획한 팸투어를 통해 임실군의 역사와 문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향후 여행 상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임실군의 잠재력과 테마형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우수한 관광자원을 국내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팸투어를 하게 돼 뜻깊다"며 "올해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임실군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7개 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4월부터 군단위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과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7개 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인턴 및 취업 연계,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도내 여성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에 돕기 위한 맞춤형 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4월 1일 고창군을 시작으로 과당당 120시간(약 2개월)의 집중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서는 ITQ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상담,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 등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도내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과당당 면접을 통해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군 단위 지역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고 고용 불안이 큰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jbwf.or.kr) 또는 전북광역새일센터 전화(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가치봄영화제, 협약... 가치봄 영화 상영 확대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가치봄영화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영화제 기간 중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치봄영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담아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어영상이 포함된 영화로 영진위의 콘텐츠 브랜드 명칭이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인 5월 7일과 8일 양일을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의 날'로 지정, '특별상영: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를 운영한다. 특별상영에서는 △가치봄영화(WITHBOM

version) 단편 10편 △배리어프리영화(Barrier-free version) 장편 3편, 단편 1편 △수어영화+화면해설(Sign language Film+Audio Description) 장편 2편, 단편 1편까지 총 1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작 중에는 전주영상미디어센터의 가치봄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지역 영화들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수상작 3편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상영은 무료로 운영된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로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